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자기통제력, 사회적 애착 및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control, social attachment and delinquency in female youth

이 서 호*

차 례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비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인과성 및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애착 및 비행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대상으로는 KCYPS 2018의 중1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으며 범죄사회학 이론 알려진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과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비행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자기통제력은 친구애착, 교사애착 및 부모애착에 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고, 자기통제력이 각종 사회적 애착요인들에 미치는 설명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애착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자기통제력과 친구애착의 경우 비행에 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반면, 여타 애착요인들의 경우엔 유의미하지 않았다. 나아가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애착요인들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친구애착의 간접효과는 양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의 직접적인 영향이 여타 애착요인들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을 예측하고자 할 때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에 보다 주목할 필요성을 남기며 자신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회적 타자보다 오히려 또래와의 애착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성 차별적 비행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조기교육과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 주제어 : 여자 청소년, 자기통제력, 친구애착, 부모애착, 교사애착, 비행

I. 서론

청소년 비행에 대한 많은 이론 및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왔으며 여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전영실, 2003). 나아가 전통적인 범죄사회학 이론들을 검증하는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을 살펴봐도 성 차별적 접근을 고려하지 못한 경향이 일반적인 바, 이는 미국에서 파생된 대부분의 범죄사회학 이론들이 성 차별적 접근을 도외시하였고 이러한 이론들을 국내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서도 일부 기인한다(이서호, 박정선, 2022).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양상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기에 전체비행을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협소한 설명력을 지닐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찍이 Chesney-Lind(1989)는 여성들의 비행 및 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성 차별적인 이론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비행 현상 및 비행에 이르게 되는 경로 등은 남성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 본다. 즉, 여성들의 고유한 비행 현상과 원인을 적절히 설명하고 수 있는 성 차별적인 이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 구분적 관점은 청소년들의 비행원인 및 경로 등을 구조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에서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비행 현상 및 원인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남기는 바, 성차에 따른 비행의 빈도 및 심각성 등

과 함께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비행 현상과 원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검증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관련, 이성식(201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비행 현상을 보다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선 개인의 내적 및 외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바, 공통적인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통제적 관점(Control point of View)은 내적 및 외적 통제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어 비행을 설명하는 적합한 이론적 전제라고 볼 수 있겠다. 나아가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내적 통제의 수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여 내적 통제에서 성차의 존재를 암시한 바 있고, Hirschi(1969)도 사회적 애착의 수준에 있어서 타자와의 상호작용 및 결속의 정도에서 성차의 존재를 인정했다. 즉, 통제적 관점은 공통적으로 성차를 인정한 이론적 배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성 차별적 접근을 통해 비행현상을 적절히 설명하고자 할 때 적절한 이론적 관점이 될 수 있어 비행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타당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봐도 이미 자기통제력과 비행에 대한 기회적 요인 및 사회적 애착요인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으로 비행을 바라본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Hay, Forrest, 2008; smith, 2004).

통제적 관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의 원인을 자기통제력이라는 단일적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들은 비록 비행에 대한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부정하였으나 사회환경적 요인들 또한 자기통제력의 영향에 반응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비행에 대한 일종의 기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결과적으

로 비행 및 비행에 대한 기회적 요인 모두 자기통제력의 영향으로 통합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이론’의 핵심적 주장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론은 사회환경적 요인들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부정한 것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사회학 이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학문적 논쟁을 야기한다. 다수의 범죄사회학자들의 주장 즉, 비행에 대한 원인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을 핵심으로 바라본 것과 대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작용들과 비행간의 그들의 ‘허위’ 주장은 ‘범죄의 일반이론’의 주요한 이론적 결점으로 보인다. 즉, ‘범죄의 일반이론’은 일반적으로 자기통제력이라는 단일 요인적 접근을 통해 비행 및 각종 비행의 기회적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폭넓은 이론적 체계로 이해된다는 것이며(이서호, 박정선, 2022), 그럼에도 자기통제력이라는 개인의 내적요인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작용들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이론적 한계를 제기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 기광도(2013)는 자기통제력은 사회적 애착요인들을 통해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작용들과 비행간의 관계가 ‘허위’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오히려 다양한 사회적 기회요인들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매개’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이 언제나 비행에 대한 주요한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비록 자기통제력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도 비행에 대한 기회적 요인 및 사회적 애착요인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비행에 대한 개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통제력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그동안의 경험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수홍, 2005; 이성식, 2007),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이 비행으로 이

어지는 경로에 있어서 다양한 애착요인들의 부분적 매개를 예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국내연구들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에 주목하고자 할 때 오로지 직접적인 영향만으로 비행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비교적 많았는데 이러한 부족한 국내 연구실정에 비추어 개인성향 및 비행에 대한 기회적 역할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는 복잡다단한 청소년들의 비행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내·외적 환경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즉, 통제적 관점에서 개인의 내적 통제 및 사회적 통제를 함께 논하는 이론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성차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이와 같은 구조적 관점은 비행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애착 및 비행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성차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며 일부 존재하는 연구(이서호, 박정선, 2022)마저도 이성간의 비교적 관점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여자 청소년들만의 구조적 비행현상에 대한 독립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수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애착 및 비행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아보고 여성을 기반으로 한 범죄학 이론의 통합적 검증 및 발전가능성 등을 짚어보며 성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비행예방 대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비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여자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결정한다는 소위 ‘고전주의적 인간관’을 받아들여 고통과 쾌락 간의 상대적 차등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행위체계를 자신의 이론에 접목시켰다. 이와 관련, 그들의 저서 ‘범죄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rime)’은 범죄 및 비행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서 장기적인 손실 및 고통에 대응하는 방식에 개인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Gottfredson과 Hirschi는 이러한 차이를 자기통제력의 차이로 모든 유형의 비행 및 비행에 대한 기회적 요인들 설명하고자 자기통제력의 ‘일반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Simpson과 Piquero(2002)는 자기통제력으로 조직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범죄 및 비행을 설명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며, 나아가 이성식(2010)은 Gottfredson과 Hirschi가 그들의 저서에서 자기통제력이 다양한 비행의 기회적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논의하고 정의하진 않았다고 보아 이와 관련해선 후속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보았다. 즉, 그들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차별적 기회구조 및 기회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논의에 관하여는 명확히 답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Barlow, 1991). 하지만 각종 차별적 기회구조로 볼 수 있는 비행에 대한 기회적 요인들은 청소년기의 주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겠으며(이서호, 2022), 이러한 기회적 요인들은 개인이 처한 환

경 및 성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이론이 더욱 ‘일반성’을 갖추기 위해선 청소년기의 가변적인 사회환경적 특수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남긴다.

이와 같이 자기통제력의 영향에 관한 이론을 ‘일반이론(General Thoery)’라 일컫는 근거는 모든 유형의 비행과 범죄 및 기회적 요인에 대한 폭넓은 설명력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성’에 성 구분이 포섭되지 않아 자기통제력의 성차에 관한 후속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Gottfredson과 Hirshi(1990)는 자기통제력의 성차를 그들의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일반이론’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자기통제력의 각종 비행현상 및 기회적 요인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성차도 정교한 논의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에서 자기통제력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거나(김두섭, 민수홍, 1994; 기광도, 2001),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들을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민수홍, 1996; 이운호, 2000)이다. 현재까지도 자기통제력의 영향을 성 차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서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범죄의 일반이론에서 제시된 자기통제력의 효과가 여자 청소년들에게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그들의 자기통제력이란 개념을 소위 ‘일반이론(General Theory)’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남자 청소년 뿐만 아니라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도 자기통제력의 영향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범죄와 비행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범

죄의 기회'와 '자기통제력의 차이' 및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범죄의 기회' 측면에선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비행의 기회에 더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있어서 아들보단 딸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태도로 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경우 성장한 후에도 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범죄의 기회에 노출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기회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주목한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기통제력을 부모와 자녀의 애착에서 7-8세를 전후로 하여 형성이 된다고 보며 이는 향후 변함없이 유지되는 속성을 지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 조영오(2020)는 자기통제력 생성의 주원인인 부모의 양육에 있어서 보호자들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자기통제력의 성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양육방식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자기통제력의 형성 수준에도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비록 '범죄의 기회'의 차이가 성별과 구분이 없이 동등한 조건이더라도 국내에서 비행을 설명하는데 여자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는 민수홍(2002)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범죄 및 비행에 더 낮은 개입을 보일 수 있음을 주장했으며 Tibbetts and Herz(1996)의 연구도 자기통제력은 여성들의 비행과 범죄를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및 경험적 주장들은 여자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은 일반적으로 비행 및 범죄에 대한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민수홍(2002)은 여자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경미한 비행에서 심각한 중비행까지 더 저지르

기 쉽고, 폭력비행 및 재산비행 등 다양한 유형의 비행까지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조영오(2019a)는 여자 청소년들의 높은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비행 및 폭력비행 같은 중한 비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LaGrange와 Silverman(1999)는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을 하위척도로 세분화하여 각 하위척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예컨대, 하위척도 중 높은 충동성의 경우 약물비행만을 증가시켰으며 높은 위험 추구성은 재산비행과 폭력비행을 비롯한 전체비행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대한 적절한 설명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에 따라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상이할 수 있고 성별에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각종 비행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비단 여자 청소년들만의 고유한 자기통제력이 특정 유형의 비행에 설명력을 지닐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선부른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조영오(2019b)도 자기통제력이 비행유형은 물론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범죄의 원인에 있어서 성 인지적 측면에 대한 더욱 정교한 고찰과 이와 연관된 비행유형에 대한 논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남긴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성차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곧 비행의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대한 단일 요인적 원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바, 이와 같은 이론 및 경험적 연구결과들에 따라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 및 비행에 대한 기회적 요인들을 자기통제력의 영향으로 바라보려는 관점은 비행에 대한 타당하고 폭넓은 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자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애착요인의 통합적 접근

청소년기의 비행현상은 매우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으로 개인의 내적 요인(자기통제력)과 외적요인(사회환경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정혜원, 박성훈(2011)은 낮은 자기통제력 뿐만 아니라 비행 및 범죄를 용이 및 억제하게 할 수 있는 ‘촉진요인’ 및 ‘완충요인’ 과 같은 각종 사회적 작용들의 영향을 함께 언급한 것에서 나아가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관계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바라본다. 나아가 기광도(2013)도 자기통제력은 사회적 애착요인들을 통해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사회적 애착요인들의 매개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비행을 야기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이 비록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도 다양한 사회적 작용들의 영향으로 인한 매개적 역할이 비행에 대한 억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인 바(이서호, 박정선, 2022), 역으로 자기통제력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도 일부 사회환경적 요인들의 부분적 역할로 인해 비행의 증가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에 있어서 사회환경적 요인들의 다양한 부분적 매개역할은 복잡다단한 청소년들의 비행현상에 있어서 매우 가변적일 수 있고 축적된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내적기질과 다양한 외적작용들의 통합적 시각은 비행 및 범죄를 설명하는데 폭넓은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아도 자기통제력은 비행의 기회적 요인(사회환경적 요인)의 선행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바, 비행 및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자기통제력과 각종 사회적 요인들을 통합

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Brownfield, Sorenson, 1993; Chapple, 2005; McGloin, Shermer, 2009). 실제로 기광도(2013)는 각종 애착요인들을 포섭하는 사회통제이론과 개인의 내적 속성에 주목한 자기통제이론은 합리성, 쾌락 추구성 등 공통적인 이론적 전제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상충되는 측면이 적다고 주장한 바 있고,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요인들을 통합하여 비행을 설명하려는 시도 및 이러한 관계에서 사회적 애착요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ampson, Laub, 1995; Baron, 2003).

이와 관련, 일부 존재하는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비행에 미치는 자기통제와 애착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이론으로 나누어 설명한다(조영오, 2019a). 우선 ‘선택이론’의 경우,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지닐 경우 높은 충동성과 자기중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타인과의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자기통제력은 비행의 유일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착유형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기존의 애착요인들과 비행간의 관계는 ‘허위’라고 본다. 반면 ‘인과이론’의 경우, 타인과의 애착관계는 비행에 대한 주요한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바, 개인의 범죄개입에 대한 차이는 애착의 다양한 성격과 수준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은 이러한 선택이론과 인과이론을 통합한 것으로 비행은 개인의 내적속성(자기통제력)과 사회환경적 요인들의 통합된 결과물 바라는 보는 관점이다. 예컨대, Sampson과 Laub(1995)에 의한 ‘통합이론’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개인의 내적특성(자기통제력)은 사회의 다양한 애착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비행의 개입에도 유의한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영오(2019a)는 자기통제와 애착 및 비행간의 관

계를 검증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선택이론과 인과이론의 통합적 관점이 비행에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Wright 등(1999)도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애착요인들이 매개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통합이론’이 비행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방식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Hay와 Forrest(2008)도 자기통제력은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애착요인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자기통제에서 애착 및 비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이론’으로서 지지한 바 있다.

나아가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및 구조적인 영향관계에서 성 차별적인 관점은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김성경(2003)은 성을 분리하여 청소년들의 비행현상을 성 차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이는 대부분의 미국 범죄사회학 이론들은 남성표본을 대상으로 이론의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이론들에 대하여 성 차별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못한 연구환경에도 일부 기인한다(이서호, 박정선, 2022). 그러나 범죄와 비행에 대한 이론들이 주로 남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고 해서 여성의 범죄와 비행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전영실, 2003). Gottfredson과 Hirschi도 그들의 이론에서 비행 및 범죄에 있어서 성차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자기통제력의 차이로 설명하고자 한 바(민수홍, 2002), 자기통제력의 근원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양육에 의하여 형성이 되는데 부모들은 비행개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아들보다 딸에게 더욱 클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커 딸에 대한 감독, 관리가 더욱 엄격하다고 본다(Jo & Bouffard, 2014).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이 형성이 될 수 있음을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비행에 덜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Hirschi(1969)도 비록 그의 사회통제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표본을 제외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애착과 결속의 정도에 있어서 성차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으며 Sampson과 Laub(1995)도 사회적 타자와의 애착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했는데 기본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 및 다양한 상호작용에 더욱 높은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타자와의 애착수준도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Cernkovich와 Giordano(1987)의 연구에서도 사회통제이론이 남자 청소년들의 비행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성 중심의 범죄학 이론이 비록 여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더라도 여성들의 비행현상에 대한 관심과 검증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자기통제 및 사회통제를 기반으로 한 통제적 이론의 관점은 여성들의 비행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함께 개인의 내적 및 외적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복잡다단한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현상을 보다 정밀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olakowski(1994)도 자기통제력에서 사회적 애착 및 비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를 설명하는 합리적인 설명방식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와 관련, 국내에서 수행된 이서호, 박정선(2022)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모든 애착요인들에 영향을 주었고 교사와의 애착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관계를 전혀 매개하지 못했으나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관계에서 억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남성표본 중심의 범죄사회학 이론을 검증하는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원인을 상대적으로 도외시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구조적 관계를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향후 지속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애착요인들에 관하여 Bowlby(1982)는 비교적 어린시절에 형성된 다양한 애착유형의 수준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애착의 지속성’을 주장한다. 실제로 이러한 지속성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는 바, Ainsworth와 Marvin(1995)의 경우 여타 애착관계와 유별하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지속성이 발견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Hirschi(1969)는 유대의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애착의 역할을 가장 강조하는데, 그는 애착의 적용범위를 인습적 타인으로까지 확장하여 사회적 타자 즉,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활과 성장경로에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모와 친구 및 교사의 역할까지도 애착의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실제로 김상원(2007)은 애착을 크게 친구, 교사 및 부모에 대한 애착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청소년기의 주요한 사회적 및 인습적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더 양보하고 타협적으로 사회화되는 경향이 높아 사회적 타자에 대한 민감성이 더 풍부하다고 보여지며(정익중, 2005), 이러한 애착 및 대인관계가 단절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경우 비행에 개입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더욱 높아지게 된다(유성경, 2002; Brezina, 1998, Covington, 1998).

하지만 여타 애착유형과 달리 친구와의 애착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보기엔 여러 연구결과들이 혼재한다. 예컨대 이주리(2008)는 친구와의 애착이 오히려 비행의 증가를 부추긴다고 주장한 바 있고, 청소년기는 또래에 대한 동조성이 높은 시기적 특성

을 지닌다고 볼 수 있어 각종 문제적 행동에 대한 노출로 비행에 개입될 가능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김희화, 2009; 이상균, 2005; Urberg, Deigrmencioglu & Pilgrim, 1997). 즉, 여성들의 경우 소규모의 또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짝여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이 비행에 우호적인 경향을 띠는 경우 집단적 성향이 개인의 정체성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들의 비행 현상에서 친구의 영향력이 여타 요인들보다 무엇보다 강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결과가 많아(Daigle, Cullen & Wright, 2007; 홍태경, 류준혁, 2011) 또래에 대한 동조성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는 여자 청소년들의 특성상 또래애착과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선행연구 및 이론들을 검토해 보면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애착요인 및 이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적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시사한다. 나아가 자기통제력과 애착요인은 형성된 이후 지속될 수 있다는 공통적 이론적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통합이론’으로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바, 비행에 대한 합리적 설명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인과성 및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애착 및 비행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비행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보다 통합적·체계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와 같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차별적·구조적 접근은 남성 중심의 경험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이하 NYPI)에서 수행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의 2018년 기준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NYPI에서 수행된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들의 전체적인 생활환경과 발달과정 및 사회환경적 요소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자료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14-15세의 초기 청소년기는 매우 가변적인 시기로 사회환경적 및 애착요인들의 영향이 가장 적합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비행의 저연령화 경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 초기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적절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정혜원, 정동우, 2012). 본 연구는 KCYPS 2018의 중1을 대상으로 한 제1차년도 자료에서 총 2590명 중 남학생 제외 여학생 1112(약 42.9%)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자기통제력(Self Control, 이하 SC)으로 구성했다. Gottfredson과 Hirschi(1993)는 SC의 측정방식 및 측정에 대한 관점과 관련하여 개별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위적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간결하고 높은 설명력을 지닐 수 있다고 바라본다. 하지만 민수홍(2002)은 행위적 관점에서 SC를 측정하는 경우 다양한 행위양식에 대하여 중첩될 소지가 많아 이른바 ‘순환적 설명’ 및 ‘동어 반복적’ 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Akers(1991)도 낮은 수준의 SC를 이해하기 위해선 낮은 SC로 파생된 행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행위를 다시 낮은 SC로 설명하는 것은 ‘순환적’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SC의 측정을 행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오히려 태도 및 인지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Grasmic 등(1993)도 SC의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태도 및 인지적 측면을 더욱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명자(1995)는 SC를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낮은 수준의 SC는 각종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문제적 행위의 주요한 원인으로 주목된다고 본다. 즉, SC의 수준은 주의집중 문제와 깊은 연관이 지닐 수 있다는 것인 바, 김정민, 송수지(2014)는 주의집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잦고 세부적인 사항에 몰두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주의가 쉽게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강삼희 등(2006)도 Conners(1969)가 제작하고 Goyette et al(1978)가 수정한 주의력 결핍 평정척도를 기반으로 SC를 측정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도

이성식(2007)의 연구에서도 SC를 측정하는데 활용한 바 있는 KCYPS의 주의집중을 측정한 문항을 중심으로 SC를 구성했다. 본 문항들은 잦은 실수, 주의분산 및 낮은 몰입성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으로 (1)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2)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3)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4)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4가지 문항으로 구성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것을 역코딩하여 총합척도로 활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SC가 높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SC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763로 나타났다.

2) 매개변인

본 연구는 매개변인으로 Hirschi(1969)가 강조한 친구에 대한 애착(Friend Attachment, 이하 FA), 교사에 대한 애착(Teacher Attachment, 이하 TA) 및 부모에 대한 애착(Parent Attachment, 이하 PA)으로 구성했다. 우선 FA는 일반적으로 친구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결속을 의미하는 바, 청소년기의 가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변인으로 평가된다(박영신, 김의철, 2003). 이는 비행으로 나아가는 경로에 있어서 FA는 주요한 기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반영한 FA의 구체적인 문항내용으로 (1)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2)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3)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4)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4가지 문항으로 구성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것을 총합척도로 활용하였다.

즉, FA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상호작용 및 결속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FA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882로 나타났다.

TA는 학교에 대한 애착의 한 유형으로서 청소년기의 생활지도와 학업과 관련된 주요한 사회적 타자로 볼 수 있는 교사와의 지속적인 결속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반영한 TA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내용으로 (1)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 (2) “선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3)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신다” (4) “선생님은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신다” 4가지 문항으로 구성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것을 총합척도로 활용하였다. 즉, TA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지속적 상호작용 및 결속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TA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825로 나타났다.

PA는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와 결속을 의미하는 바, Hirschi(1969)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 및 결속 수준은 부모의 신념과 가치관 등을 자녀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반영한 PA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내용으로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4) “부모님을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5) “부모님을 나를 믿어주신다” (6)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7)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8)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8가지 문항으로 구성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것을 총합척도로 활용하였다. 즉, PA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높은 수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926로 나타났다.

3)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 이하 JD)으로 구성했다. JD는 비행유무를 측정한 15개의 문항 중 지위비행을 비롯한 청소년기에 비교적 쉽게 저지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경한 비행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압축 구성했다. 이성식(1999)은 청소년들의 비행현상은 지위비행과 같은 비교적 경한 비행에서 시작된다고 보아 이는 향후 중한 비행으로 나아가는 촉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더욱 심각한 비행으로 나아가는데 기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교적 경한 비행이 청소년들의 비행현상을 좀 더 폭넓게 설명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다. 나아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사회통제이론의 경우 중한 비행 보단 경한 비행에 보다 적합하다는 연구결과(정진정, 정하보, 김정민, 2020)도 있으며 실제로 Agnew(1991)도 사회통제이론이 경한 비행에 보다 적합하다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JD 문항으로는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가출’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 경험 여부_시키기’ 4개 문항으로 압축 구성했다. JD 문항의 각 변인은 더미 변인으로 구성되었고 “경험 없다=0”, “경험 있다=1”로 구분한 것을 총합척도로 활용하였다. JD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601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청소년기의 비행현상 및 범죄에 있어서 학업수준 및 학업에 대한 관여 등은 주요한 사회통제적 요인으로 여겨진다. 김준호, 노성호(1992)는 이는 공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학업적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장 및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학업에 대한 지향성 및 참여수준 등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완고한 위치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이서호, 박정선, 2022). 나아가 학업적 요인들은 그들이 처한 지역의 사회구조와 가정의 역할 및 생활수준 등을 떠나 학습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의무에 대한 개별적 인식을 불문하고서도 청소년기의 삶에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관련 요인들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반사회적 현상 즉, 비행에도 주요한 사회통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다. 특히, Rankin(1980)은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의 정도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심지어 Esbensen과 Deschenes(1998)는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취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면 폭력적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제변인으로 학업적 요인으로서 학업성취만족도(Satisfac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이하 SAA)와 학업수준(Academic Level, 이하 AL)로 구성했다. SAA의 경우, 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문항을 활용했으며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것을 분석에 투입했다. AL의 경우, 전 교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측정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매

우 못함”에서 “매우 잘함”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했다. SAA, AL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적에 대하여 높은 만족과 수준을 보인다고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투입된 모든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연구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하여 상관분석 및 변량팽창계수와 공차한계를 알아본 결과 상관계수는 -.5~.5 사이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728~.856, 변량팽창계수값은 1.168~1.373 사이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 변인 | 구분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독립 | SC | 4 | 16 | 11.84 | 2.43 |
| | FA | 4 | 16 | 12.92 | 2.13 |
| 매개 | TA | 4 | 16 | 11.96 | 2.13 |
| | PA | 8 | 32 | 26.73 | 4.38 |
| 종속 | JD | 0 | 4 | .07 | .32 |
| 통제 | AL | 1 | 5 | 3.35 | .91 |
| | SAA | 1 | 5 | 3.37 | 1.00 |

5) 요인분석

본 연구는 독립, 매개 및 종속변인들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 척도 문항 24개의 잠재요인을 추출했다. 표본적합도(MSA)는 0.885로 나타나 본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 = 11218.603$ $p=0.000$ 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변수 간의 상관성

이 인정되어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었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선택기준은 공통성은 0.5 이상, 고유 값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들의 누적분산비는 62.203%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5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PA(Parent Attachment)', 요인2는 'FA(Friend Attachmnet)' 요인3은 'JD(Juvenile Delinquency)' 요인4는 'TA(Teacher Attachment)' 요인5는 'SC(Self Control)' 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2>와 같다.

EFA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및 적합도 검증결과는 <표 2-1>과 같다.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결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비교적합지수 CFI, 비표준적합지수 TLI, 절대적합지수 RMSEA와 SRMR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CFI=.932, TLI=.923, SRMR=.036, RMSEA=.053(.050~.057)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CFI, TLI는 적합도 지수가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RMSEA는 적합도 지수가 .06이하이면 적합한 모형, .08이하이면 적당한 모형, .10이상이면 부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한다. SRMR은 일반적으로 .05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CFA 결과에서 나타난 요인분석 적합도는 매우 양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요인적재값(β)값도 모두 .5를 기준으로 모두 상회하고 있으므로 구성개념타당성의 집중타당성도 검증되었다($p<.001$).

〈표 2〉 요인분석 결과 및 적합도 검정

|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 | 0.885 | | | | |
|--------------------|------|--------------|--------|-----------|--------|--------|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 Approx x^2 | | 11218.603 | | |
| | | 자유도(df) | | 276 | | |
| | | p | | .000 | | |
| 항목 | 공통성 | 요인 | | | | |
| | | 1 | 2 | 3 | 4 | 5 |
| 1 | .625 | .781 | | | | |
| 2 | .621 | .778 | | | | |
| 3 | .654 | .766 | | | | |
| 4 | .618 | .762 | | | | |
| 5 | .622 | .760 | | | | |
| 6 | .649 | .756 | | | | |
| 7 | .603 | .752 | | | | |
| 8 | .523 | .704 | | | | |
| 9 | .612 | | .828 | | | |
| 10 | .742 | | .823 | | | |
| 11 | .716 | | .738 | | | |
| 12 | .576 | | .716 | | | |
| 13 | .772 | | | .872 | | |
| 14 | .727 | | | .848 | | |
| 15 | .597 | | | .770 | | |
| 16 | .500 | | | .667 | | |
| 17 | .607 | | | | .772 | |
| 18 | .663 | | | | .739 | |
| 19 | .597 | | | | .732 | |
| 20 | .592 | | | | .720 | |
| 21 | .545 | | | | | .776 |
| 22 | .572 | | | | | .772 |
| 23 | .603 | | | | | .756 |
| 24 | .635 | | | | | .715 |
| 요인명 | | PA | FA | JD | TA | SC |
| 고유값 | | 6.525 | 2.698 | 2.208 | 1.970 | 1.528 |
| 분산비율 | | 27.189 | 11.241 | 9.200 | 8.208 | 6.366 |
| 누적분산비 | | 27.189 | 38.430 | 47.629 | 55.838 | 62.203 |

〈표 2-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적합도

| | | | | RMSEA 90% CI | | |
|--------|-----------|----------|-------|--------------|-------|---------|
| CFI | TLI | SRMR | RMSEA | Lower | Upper | |
| .932 | .923 | .036 | .053 | .050 | .057 | |
| Factor | Indicator | Estimate | SE | Z | p | β |
| SC | SC-1 | .482 | .002 | 20.7 | <.001 | .646 |
| | SC-2 | .501 | .026 | 19.3 | <.001 | .610 |
| | SC-3 | .531 | .025 | 21.5 | <.001 | .669 |
| | SC-4 | .595 | .025 | 24.1 | <.001 | .738 |
| FA | FA-1 | .407 | .017 | 24.4 | <.001 | .694 |
| | FA-2 | .482 | .015 | 31.0 | <.001 | .830 |
| | FA-3 | .457 | .016 | 28.6 | <.001 | .782 |
| | FA-4 | .360 | .016 | 22.8 | <.001 | .660 |
| TA | TA-1 | .450 | .019 | 24.0 | <.001 | .707 |
| | TA-2 | .439 | .017 | 25.8 | <.001 | .747 |
| | TA-3 | .373 | .016 | 22.7 | <.001 | .674 |
| | TA-4 | .440 | .020 | 21.8 | <.001 | .652 |
| PA | PA-1 | .488 | .002 | 29.9 | <.001 | .785 |
| | PA-2 | .474 | .017 | 28.6 | <.001 | .762 |
| | PA-3 | .458 | .016 | 28.1 | <.001 | .752 |
| | PA-4 | .493 | .018 | 28.0 | <.001 | .750 |
| | PA-5 | .450 | .016 | 27.7 | <.001 | .745 |
| | PA-6 | .491 | .017 | 28.5 | <.001 | .762 |
| | PA-7 | .494 | .019 | 26.5 | <.001 | .722 |
| | PA-8 | .444 | .019 | 23.5 | <.001 | .661 |
| JD | JD-1 | .406 | .013 | 32.3 | <.001 | .867 |
| | JD-2 | .352 | .011 | 30.9 | <.001 | .836 |
| | JD-3 | .108 | .006 | 17.3 | <.001 | .525 |
| | JD-4 | .074 | .003 | 21.8 | <.001 | .638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SPSS PROCESS macro v3.5 model 4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macro model 4는 매개검정을 포함해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PROCESS 분석을 시도했다.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SC가 FA, TA 및 PA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각 사회적 애착요인들에 대한 SC의 설명력을 차별적으로 확인했다. 다음으로 SC와 FA, TA 및 PA가 J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SC가 JD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애착요인들을 통한 총효과, 특정간접효과 및 직접효과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구조방정식모형의 매개효과 검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Baron과 Kenny(1986)의 분석기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각 변인간의 회귀계수를 산출해 이들 계수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간접적인 추론을 내린다는 점(Hayes, 2013), 절차적 분석과정에서 가설검증의 오류발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현웅, 2014),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향하는 총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지도 못한 채 연구가설을 기각해야 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은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결정적 절차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꼽고 있어 이 부분만 유의하다면 매개효과의 존재를 판단할 근거가 생긴다고 본다(Cerin, Mackinnon, 2009). Baron과 Kenny의 간접적 추론방식 외에도 진일보한 분석방식으로 Sobel test도 존재하는 바, 이는 표본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있어 대부분 편포를 보이는 매개효과의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Preacher, Hayes,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검증방법은 표본의 반복적인 재표본추출을 하기 때문에 표본통계치에 대한 정규분포, 대칭분포 등을 가정하지 않아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큰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Andrew Hayes는 매개효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로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대중화, 보편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현웅, 2014). Hayes(2009)는 매개효과의 경우 정규분포나 t분포를 이루지 않는 것을 증명하면서 PROCESS라는 이름의 매크로세트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도 Hayes(2013)가 보급한 PROCESS를 이용하여 10,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변인간의 영향관계 및 간접효과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효과의 유의성은 일반적으로 오름차순으로 배치되어 가장 낮은 값과 높은 값을 통한 95%의 신뢰구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구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존재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IV. 연구결과

1. 자기통제력이 사회적 애착요인들에 미치는 영향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C가 이른바 ‘사회적 애착’ 요인들인 FA, TA 및 P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SC는 FA, TA 및 PA에 모두 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SC가 높은 수준일수록 FA, TA 및 PA는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Gottfredson과 Hirschi의 다양한 유형의 비행뿐만 아니라 비행에 대한 기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애착’ 요인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상기하면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그들은 성 구분없이 애착요인들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영향을 인정한 바,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이론적 부합성을 갖출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SC가 ‘사회적 애착’ 요인들에 미치는 설명력의 수준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력의 수준에 있어서 그 순서는 TA($R^2=.203$), PA($R^2=.095$), FA($R^2=.078$) 순으로 나타나는데 FA와 PA의 경우 SC에 의하여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설명력을 보인다. 하지만 TA의 경우엔 여타 애착요인들과 달리 SC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애착요인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SC의 상대적 영향력이 비교적 상이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TA는 초기 가변적인 청소년

년기에 자신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타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교사의 존재가 개인의 정체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SC와 같은 개인의 내적통제가 주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업 및 학교규율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사의 영향력은 높은 수준의 SC와 연관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다. 또한 PA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초기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주요한 사회적 타자이자 위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인 바, 기본적으로 자신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타자와의 결속의 수준에 있어서 SC의 영향력에 무엇보다 주목할 필요성을 남긴다.

나아가 Gottfredson과 Hirschi는 SC가 비행의 기회요인 즉, ‘사회적 애착’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차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사회적 애착’ 요인들 간의 SC의 설명력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성을 구분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SC의 성차와 관련된 그들의 이론적 주장을 좀 더 확장·보완할 수 있는 경험적인 연구결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 애착’의 정도가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Hirschi도 언급했듯, FA와 TA 및 PA는 초기 청소년기의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타자로 평가되는 바, SC의 이와 같은 ‘사회적 애착’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양적으로 유의하였다는 것은 일견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FA, TA 및 PA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SC를 통하여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애착요인들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자기통제력이 친구애착, 교사애착 및 부모애착에 미치는 영향(여)

| 변인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β) | t | 95% 신뢰구간 | |
|---|--------|------|------------------|-----------|----------|--------|
| | B | SE | | | LLCI | ULCI |
| Constant | 9.719 | .342 | | 28.444*** | 9.048 | 10.389 |
| SC | .150 | .027 | .169 | 5.624*** | .098 | .202 |
| AL | .309 | .090 | .132 | 3.422*** | .132 | .487 |
| SAA | .134 | .081 | .063 | 1.665 | -.024 | .292 |
| SC→ FA Regression Model Test : $R=.279$ $R^2=.078$ $F=31.133(p=.000)$ | | | | | | |
| 변인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β) | t | 95% 신뢰구간 | |
| | B | SE | | | LLCI | ULCI |
| Constant | 6.826 | .318 | | 21.490*** | 6.203 | 7.449 |
| SC | .237 | .025 | .267 | 9.561*** | .188 | .285 |
| AL | .584 | .084 | .249 | 6.960*** | .420 | .750 |
| SAA | .136 | .075 | .064 | 1.812 | -.011 | .283 |
| SC→ FA Regression Model Test : $R=.450$ $R^2=.203$ $F=93.910(p=.000)$ | | | | | | |
| 변인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β) | t | 95% 신뢰구간 | |
| | B | SE | | | LLCI | ULCI |
| Constant | 19.379 | .696 | | 27.842*** | 18.013 | 20.745 |
| SC | .389 | .054 | .214 | 7.164*** | .282 | .495 |
| AL | .598 | .184 | .124 | 3.247** | .237 | .959 |
| SAA | .265 | .164 | .061 | 1.615 | -.057 | .587 |
| SC→ FA Regression Model Test : $R=.307$ $R^2=.095$ $F=38.620(p=.000)$ | | | | | | |

* $p<.05$, ** $p<.01$, *** $p<.001$

2.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애착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C, FA, TA 및 PA가 JD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일찍이 대부분의 전통적 범죄학 이론들에 따르면 비행의 계획적 요인들, 즉 ‘사회적 애착’ 요인들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한 영향은 경험적으로 지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Hirschi의 경우, 애착요인들과 비행간의 관계는 상호연관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강한 사회적 애착관계를 형성할수록 청소년기의 비행 및 범죄가 더욱 통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유대(Bond)란 사회적 타자 및 다양한 가치체계와 지속적으로 연관성이 존재하는 관계로 복합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이러한 다차원적이고 다분히 추상적인 상호작용 및 연관성의 성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의 및 개념화하기 쉽지 않다. 예컨대, Hirschi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타자와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비행 및 범죄로 나아가는 일종의 억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깊은 유대 및 친밀한 애착 등은 비행에 대한 긍정적 정의 및 비행 기회의 학습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주장도 제기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더라도 관계의 성격 및 애착의 방향성 등은 매우 복잡한 사회적 작용으로 볼 수 있어 좀 더 지속적이며 정교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론의 다차원적 함의를 고려해 보았을 때, <표 4>에 따른 본 연구결과를 상기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해 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애착요인들 중에서 FA는 JD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여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와의 높은 수준의 애착을 보일수록 비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높은 수준의 애착은 비행에 대한 억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통제적 관점과 상반된 결과인 바, 앞서 언급했듯 사회적 유대 및 결속 여부는 비행의 증가와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상이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초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로부터의 성 동조화 현상 및 성적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역할에 대하여 그 어느시기 보다 가변적이고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또래와의 긴밀한 애착이 비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향후 비행의 기회감소 및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인 성 차별적 비행 예방대책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TA 및 PA와 같은 여타 사회적 애착요인들의 경우 JD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는 초기 여자 청소년기들은 자신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타자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경한 비행과는 연관이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오히려 개인의 내적 통제요인으로 볼 수 있는 SC의 직접적인 영향은 JD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바, 높은 수준의 SC는 JD를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FA, TA 및 PA와 같은 애착요인들이 JD에 미치는 영향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초기 여자 청소년들에겐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등이 JD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을 통제·감독 등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타자와의 애착관계는 비교적 경한 비행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SC의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였다는 것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비행을 감소하는데 개인의 내적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Gottfredson과 Hirschi의 애착요인들과 비행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허위’라는 주장은 일부 애착요인이 유의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좀 더 지속되는 논의를 요하며 그들의 ‘일반이론’에서 강조한 SC의 단

일 요인적 영향은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지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자기통제력, 친구애착, 교사애착 및 부모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여)

| 변인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β) | t | 95% 신뢰구간 | |
|---|--------|------|------------------|-----------|----------|-------|
| | B | SE | | | LLCI | ULCI |
| Constant | .292 | .078 | | -4.734*** | .140 | .444 |
| SC | -.010 | .004 | -.077 | -2.372* | -.019 | -.002 |
| FA | .011 | .005 | .073 | 2.176* | .001 | .021 |
| TA | -.007 | .005 | -.048 | -1.322 | -.018 | .003 |
| PA | -.004 | .003 | -.049 | -1.431 | -.008 | .001 |
| AL | -.014 | .014 | -.039 | -.958 | -.042 | .014 |
| SAA | -.005 | .013 | -.016 | -.400 | -.029 | .020 |
| Regression Model Test : R=.144 R ² =.021 F=3.881(p=.001) | | | | | | |

*p<.05, **p<.01, ***p<.001

3. 연구모형에 대한 총효과 및 직접효과 결과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모형에 대한 총효과 및 직접효과를 분석하였고 SC의 단일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총효과에서 직접효과가 차지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SC가 JD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총효과 및 직접효과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SC가 높은 수준일수록 JD는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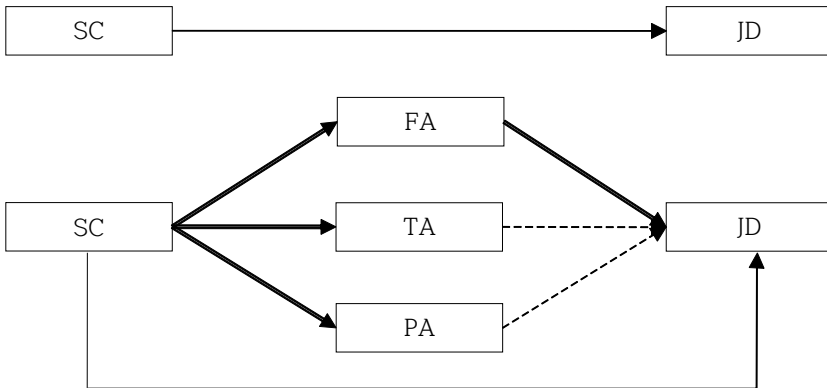
나아가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구성되는 바, 총효과에서 SC의 직접효과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총효과에서 SC가 차지하는 직접적인 영향의 비율을 통해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살펴보면 SC가 차지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약 90.9%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SC가 JD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애착 요인들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보다 오히려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Gottfredson과 Hirschi도 SC의 JD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및 단일 요인적 효과를 그들의 이론적 관점의 핵심으로 강조하였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SC가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들의 주장과도 이론적으로도 부합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FA, TA 및 PA와 같은 사회적 애착 요인들은 청소년기의 주요한 사회적 타자이며 이들과의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이 청소년 시기에 각종 통제적 역할 및 유대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SC의 JD에 대한 높은 직접적인 영향은 JD에 대한 SC의 단일 요인적 영향력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여자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나아가는 경로에 있어서 SC와 같은 개인의 내적 통제는 각종 사회적 작용들을 통한 비행으로의 개입보다 더욱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선 분석결과들을 종합한 여자 청소년 대상 본 연구모형에 대한 총효과와 직접효과 및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 유의성을 점선과 실선으로 나타낸 경로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실선은 부적으로 유의하고, 이중 실선은 양적으로 유의, 점선은 유의하지 않음을 각각 나타낸다.

〈표 5〉 연구모형에 대한 총효과 및 직접효과(여)

| 총효과 및 직접효과 | | | | | | |
|------------|------|------------------|-------------|------|------------------------|-------|
| 총효과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β) | t | p | 95% 신뢰구간 | |
| B | SE | | | | LLCI | ULCI |
| -.011 | .004 | -.088 | -2.835** | .005 | -.020 | -.004 |
| 직접효과 | | | | | | |
| Effect | | SE | t | p | 95% 신뢰구간 | |
| | | | | | LLCI | ULCI |
| -.010 | | .004 | -2.372* | .018 | -.019 | -.002 |
| 직접효과/총효과 | | | -.010/-.011 | | 비율 \rightarrow 90.9% |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연구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여)



4. 연구모형에 대한 특정간접효과 결과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C가 JD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FA, TA 및 PA의 특정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표 6>의 (1)에 따르면 FA의 특정간접효과는 양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Effect=.002). 즉, SC가 높은 수준일수록 FA를 통해 JD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부 사회적 애착요인의 경우 SC가 JD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며 매개적 관계의 성격에 있어선 양적인 역할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바, 본 연구결과에서는 FA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앞선 분석결과에서 SC는 JD에 대하여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FA는 JD에 대하여 양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A의 특정간접효과가 SC가 JD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본 분석결과는 JD에 대한 억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SC의 단일적 영향에 FA가 개입될 경우 되려 JD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초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SC는 JD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FA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경우엔 오히려 JD를 촉진 및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는 여타 애착요인들과 달리 JD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일하게 양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만큼 FA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에게 FA와 같은 일부 애착요인은 JD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며 SC와 JD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일찍이 Gottfredson과 Hirschi가 각종 비행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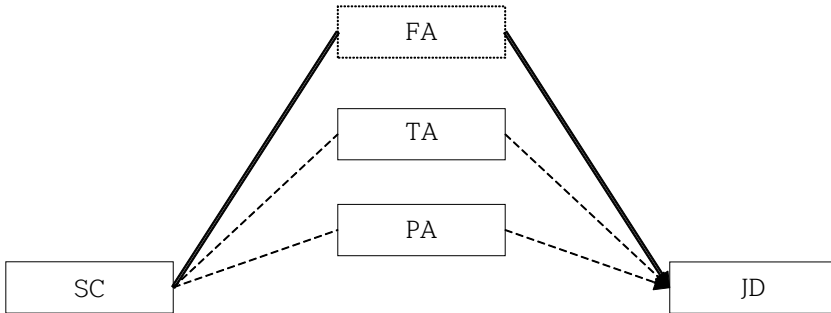
기회적 요인과 비행간의 관계를 단순히 ‘허위’로 바라본 것과 대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각종 사회적 애착요인들은 SC와 JD의 관계를 ‘매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표 6>의 (2)와 (3)을 보면 TA와 PA의 경우 각각 특정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관리·통제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타자로 여기는 교사 및 부모와의 애착은 SC에서 JD로 나아가는 관계에 있어서 전혀 영향이 없음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TA와 PA가 JD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는 점과 함께 이들 애착요인들이 SC와 JD의 관계에서 전혀 매개할 수 없다는 것은 초기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여타 애착요인들의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함의를 지닐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2>는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특정간접효과의 유의성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점선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이중실선은 간접효과가 양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6> 매개변인들의 특정간접효과 분석결과(여)

| 매개변인 | Effect | BootSE | 95% 신뢰구간 | |
|--------------|--------|--------|----------|----------|
| | | | BootLLCI | BootULCI |
| (1) SC→FA→JD | .002 | .001 | .000 | .003 |
| (2) SC→TA→JD | -.002 | .001 | -.005 | .001 |
| (3) SC→PA→JD | -.001 | .001 | -.004 | .001 |

〈그림 2〉 특정간접효과의 유의성 분석결과(여)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현상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성 차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애착 및 비행간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통제력이 애착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양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비행에 대한 기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회적 애착’ 요인들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통제력의 증가는 그들의 주요한 사회적 타자가 될 수 있는 친구, 교사 및 부모 등과 높은 수준의 애착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사회적 애착요인간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설명력이 상이한 바, 초기 여자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은 교사에 대한 애착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관련 규율을 내면화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교사의 존재가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력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Gottfredson과 Hirschi도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들의 비행뿐만 아니라 비행에 대한 기회적 요인 즉, ‘사회적 애착’ 요인들에도 성 구분없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들의 ‘일반이론’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각종 사회적 애착요인들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설명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한 경우가 없어 자기통제력의 각종 애착요인들에 대한 설명력 차이 및 이러한 차이에 있어서 성을 구분한 연구의 필요성에 관해 향후 본 연구결과가 이론적·경험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타 애착요인들과 달리 친구애착의 경우 비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 친구에 대한 애착은 초기 여자 청소년들에게 비행에 대한 주요한 기회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친구애착의 경우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부적인 영향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양적으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여자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나아가는 경로에 있어서 친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Gottfredson과 Hirschi는 그들의 일반이론에서 다양한 사회적 애착요인들과 비행간의 관계를 ‘허위’로 바라보며 오직 자기통제력이 비행 및 비행의 기회적 요인에 대한 단일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와 같이 일부 애착요인은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일부 요인(친구애착)의 경우 간접효과로서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부분적 매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면 그들의 이른바 ‘허위’로 바라본 이론적 입장은 일반적으로 지지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본 연구와 함께 기존의 선행연구 등을 검토해 볼 때 다양한 ‘사회적 애착’ 요인들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매개’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시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애착요인들 중에서도 교사애착과 부모애착의 경우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관계를 전혀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초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엔 여타 애착요인들 보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무엇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애착 및 비행간의 관계에서 더욱 다양한 사회적 애착요인들을 통한 정교한 분석을 담은 성 차별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나아가 Hirschi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인습적인 타자와의 유대와 결속이 비행 및 범죄로 나아가는데 일종의 억제적 및 통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이와 같은 이론적 입장은 본 연구결과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지지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기 여자 청소년들에게 친구와의 결속과 상호작용 등이 비행의 증가와 관련된 기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또래와의 친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각종 비행에 대한 긍정적인 암묵적·집단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 혹은 기회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은주(2000)의 연구를 보아도 친사회적 친구와의 애착은 비행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등 비행과 정적인 상관성이 나타난 바 있어 여자 청소년들의 특유한 관계 지향적 속성이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친사회적 친구관계는 비행기회의 감소를 가져오고, 비행친구와의 관계는 비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

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나, 청소년들의 비행현상은 관계 지향적 속성에서 야기된 다양한 애착의 성격 및 비행의 기회적 여건과 같은 복잡다단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어 친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비행에 대한 학습 및 비행기회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형성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폭넓은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친구와의 애착수준은 친사회적 및 반사회적 친구와의 상호작용 각각에서도 일정 수준으로 형성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구분은 다분히 개인적·주관적 및 관계 지향적 속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어 후속연구에선 이와 연관된 애착의 측정에 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요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친사회적 및 비행친구에 대한 구체적 구분은 비행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학습하는데 개인의 가치 지향성 및 관계적 속성 등을 모두 요구하는 복잡다단한 측정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본 연구는 Hirschi가 언급한 애착에 대한 보편적 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앞서 언급했듯, Hirschi의 사회적 타자에 대한 각종 애착이 비행에 대한 통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입장과 상충되는 결과이지만 친구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들의 비행 연구에서 이중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향후 지속적인 검증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하유진, 이경은, 2020).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총효과를 보면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은 비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자기통제력과 비행은 일반적으로 부적인 영향관계를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총효과에서 직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약 90.9%)을 보아도 사회적 애착요인들을 통한 간접효과(약 9.1%)보다 직접적인 영

향이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을 더욱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Gottfredson과 Hirschi도 자기통제력을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단일적 요인으로 보았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통제력의 수준이 남성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그들의 이론적 주장과 부합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직접적인 영향은 비행에 대한 기회적 요인 및 비행현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비행예방 대책으로써 비행 및 범죄를 유발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특정 반사회적 및 일탈적 행위에 대한 처우와 대응방식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향후 중한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담배나 술 등과 같은 문제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자칫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Gottfredson과 Hirschi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은 초기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그 수준이 형성이 되고 향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는 바, 오히려 비행예방에 있어서 적절한 부모의 양육을 통해 초기 자기통제력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비행예방 대책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부모의 적절한 감독 및 양육체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부모가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으며 자녀의 숫자만큼 돌봄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요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효과적인 자녀양육의 조기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심지어 역기능적 가정의 부적절한 양육에 기인한 초기 자기통제력의 완전하지 못한 형성을 우려하여 혼전임신의 예방과 관련된

정책을 최우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비행의 원인에 있어서 친구와의 애착도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며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촉진적 역할도 수행하는 바, 또래에 대한 상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에 애착형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행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공유되거나 일탈에 대한 호기심 등이 비행의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즉, 비행과 일탈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또래와의 조직적 특성이 비행에 대한 우호적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래와의 밀접한 관계 및 높은 애착수준이 다양한 폭력적 행위 및 비행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Krug, Mercy, Dahlberg, Zwi, 2002).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비행예방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또래와의 애착에서 기인한 각종 관계위험요인의 파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특히, 강한 집단적 소속감과 또래관계가 개인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비행 및 범죄로의 개입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수준에서의 다양한 통제기제를 함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내포함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본 연구는 비행을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은 비교적 경한 비행들로 구성했다. 이는 비교적 경한 비행이 향후 중한 비행으로 나아가는 기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사회통제이론이 경한 비행에 보다 적합하다는 선행연구 및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수행된 다수의 연구결과도 매우 신뢰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초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 타자와 가정에서의 상호작용 등이 개인의 정체성 및 향후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점에서 집단 따돌림에서 무단결석 및 가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행유형과 밀접한 연관이 될 수 있음을 가정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발전은 비행의 다양화, 흉포화 및 지능화 등의 경향으로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띄고 있으며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비행유형이 사이버 접속을 통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범죄도 횡횡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구성된 비교적 경한 비행유형으로 한정하여 초기 청소년 비행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는 다소 협소한 설명력을 지닐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로 나아갈수록 학업적 압박으로 인하여 사회적 유대요인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아 청소년 초기로 볼 수 있는 중1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1이 사회적 유대요인의 영향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국내 사회실정을 반영하여 연령과 비행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본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후속연구에선 이러한 한계점들을 기반으로 비행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국내의 고유한 사회환경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연령과 비행간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가 요구될 것이며 다각적인 측면의 비행유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좀 더 정교한 성 차별적 연구모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개인의 내적 및 사회환경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의 비행을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기존 남성 중심의 범죄사회학 이론을 여자 청소년들에 한하여 적용해 이론의 검증 및 발전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성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성차별적 비행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남김으로써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적합한 처우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했다. 나아가 개인

의 내적 및 외적 요인을 통합·구조적으로 접근하여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논문접수 : 2022. 11. 07, 심사개시 : 2022. 11. 08, 게재확정 : 2022. 11. 22.〉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삼희, 홍정미 & 백양희.(2006). “집단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충동성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3(1), 23-48.
- 기광도.(2001). “사회계층과 자녀양육 및 비행간의 관계분석”, 형사정책연구, 47: 139-173.
- 기광도.(2013), “자기통제력, ‘사회적 결과’, 그리고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한국경찰연구, 12(3): 3-26.
- 김두섭·민수홍.(1994),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174.
- 김상원.(2007). “아동과 청소년 비행의 원인비교: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25-362.
- 김정민·송수지.(2014).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 청소년연구, 25(1), 5-27.
- 김준호·노성호.(1991). “청소년 비행의 발전단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129-165.
- 민수홍.(1995). “비행의 조기에측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48.
- 민수홍.(2002),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13(1): 2-66.
- 민수홍.(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12(2): 1-25.

- 박영신·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이서호.(2022). “자기통제력, 사회적 유대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차검증 - 사회적 유대요인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경찰대 치안대학원.
- 이서호·박정선.(2022). “자기통제력, 애착 및 비행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차검증 - 애착요인들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22(1): 103-134.
- 이성식.(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 이성식.(2010).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에의 영향 비교: 일반이론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03-223.
- 이운호.(200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통제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교육대학원.
- 이주리.(2008). “중고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과 비행”,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563-574.
- 이현웅.(2014). “국내외 HRD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HRD 연구, 16(2): 225-249.
- 유성경.(2002).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01-217.
- 전영실.(2003). “성, 사회유대, 비행에 대한 연구 - 가족적 요인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4(1): 313-348.
- 정익중.(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16(1), 35-76.

- 정혜원·박성훈.(2011).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사회유대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범죄와 비행, 1(0): 189-207.
- 정혜원·정동우.(201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1-23.
- 조영오.(2019a). “자기통제와 애착변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성차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9(2), 217-244.
- 조영오.(2019b). “자기통제와 친구관계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비행친구와 친사회적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3(1), 49-68.
- 하유진·이경은.(2020). “청소년의 애착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2(4): 93-116.
- 홍태경·류준혁.(201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8(3): 113-138.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 Akers, R. L., & Sellers, C. S.(2017). 범죄학 이론. 민수홍, 박강우, 기광도, 전영실, 최병각, 김혜경(공역). 경기: 나남. (2013년 원저발간).

2. 논문

- Ainsworth, M., & Marvin, E.(1995). "Interview with Mary Ainsworth.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 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 2-3.
- Akers, R.L.(1991). "Self-control as a general theory of crime", J Quant Criminol 7, 201- 211
- Barlow, H. D.(1991). "Explaining crimes and analogous acts, or the unrestrained will grab at pleasure whenever they can", J. Crim. L. & Criminology, 82, 229.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aron, S. W.(2003). "Self-control, social consequences, and criminal behavior: Street youth and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4), 403-425.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
- Brezina, T.(1998). "Adolescent maltreatment and delinquency: The question of intervening process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1), 71-99.

- Brownfield, D., & Sorenson, A. M.(1993). "Self-control and juvenile delinquency: Theoretical issues and an empirical assessment of selected elements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Deviant Behavior*, 14(3), 243-264.
- Cerin, E., & MacKinnon, D. P.(2009). "A commentary on current practice in mediating variable analyses in behaviou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Public health nutrition*, 12(8), 1182-1188.
- Cernkovich, S.A., and P.C. Giordano.(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295-321.
- Chapple, C. L.(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1), 89-106.
- Chesney-Lind, M.(1989). "Girls' Crime and Women's Place: Toward a Feminist Model of Female Delinquency", *Crime and Delinquency*, 35(1): 5-30.
- Conners, C. K.(1969). "A teacher rating scale for use in drug studies with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6(6), 884-888.
- Covington, S. S.(1998). "The relational theory of wom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aper presentation], In 50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 Daigle, L.E., F.T. Cullen, and J.P. Wright.(2007).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5(3): 254-286.

- Esbensen, F. A., & Deschenes, E. P.(1998). "A multisite examination of youth gang membership: Does gender matter?", *Criminology*, 36(4), 799-828.
- Goyette, C. H., Conners, C. K., & Ulrich, R. F.(1978). "Normative data on revised Conners parent and teacher rating sca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6(2), 221-236.
- Grasmic, H. G, C. R. Tittle, R. J. Bursik, & B. J. Arneklev.(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ay, C., & Forrest, W.(2008). "Self-control theory 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The case for a more systematic union", *Criminology*, 46(4), 1039-1072.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ravis and Michael Gottfredson.(1993). "Commentar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47-54.
- Jo, Y., & Bouffard, L.(2014). "Stability of self-control and gende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2(4), 356-365.
- Krug, E. G., Mercy, J. A., Dahlberg, L. L., & Zwi, A. B.(2002). "The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The lancet*, 360(9339), 1083-1088.
- LaGrange, T. C., & Silverman, R. A.(1999). "Low self-control and opportunit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as an explanation for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cy", *Criminology*, 37(1), 41-72.

- McGloin, J. M., & O'Neill Shermer, L.(2009). "Self-control and deviant peer network structur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6(1), 35-72.
- Polakowski, M.(1994). "Linking self-and social control with deviance: Illuminating the structure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1), 41-78.
- Preacher, K. J., & Hayes, A. F.(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ankin, J. H.(1980). "School factors and delinquency: Interactions by age and sex",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4(3), 420-434.
- Sampson, R. J., & Laub, J. H.(1995).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 Simpson, S. S., & Piquero, N. L.(2002). "Low Self-Control, Organizational Theory, and Corporate Crime", *Law & Society Review*, 36(3), 509-548
- Smith, T. R.(2004). "Low self-control, staged opportunity, and subsequent fraudulent behavio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5), 542-563.
- Tibbetts, S. G. & D.C. Herz.(1996).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of Social Control and Rational Choice", *Deviant Behavior*, 17, 183-208.

- Urberg, K. A., Degirmencioğlu, S. M., & Pilgrim, C.(1997).
“Close friend and group influence on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nd alcohol use”,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34-844.
- Wright, B. R. E., Caspi, A., Moffitt, T. E., & Silva, P. A.(1999).
“Low self-control, social bonds, and crime: Social causation, social selection, or both?”, *Criminology*, 37(3), 479-514.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control, social attachment and delinquency in female youth

Lee, Seo-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delinquency for female youth and the structural effects among self-control, social attachment and delinquency. The study attempted to analyze female youth in the 1st grade of KCYPS 2018 and attempted to explain the delinquency phenomenon through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inal sociology and Hirschi's social control theor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irst of all, it was found that self-control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friend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and parent attachment,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may be differences in explanatory power of self-control on various social attachment factors. According to the effect of self-control and social attachment factors on delinquency, self-control and friend attachment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delinquency, whereas other attachment factors had no significant effect. Furthermo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attachment factors in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delinquency, the mediating effect of friend attachment was positively significant, and the direct effect of self-control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indirect effect

* SungKyunKwan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Ph.D. Student

through other attachment factors. This study result leaves th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when trying to predict delinquency in female youth, suggesting that attachment with peers may be more important than social others who can manage and supervise themselves. In this regard, when establishing gender-discriminatory delinquency prevention measures,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customized early education for female youth to improve self-control and to form a positive mutual attachment with their peers.

Key words : female youth, self-control, friend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parent attachment, delinquency

